

종합

한국 두 여성 산악인 낭가파르बाट서 엇갈린 운명

히말라야 8천m 봉 오른 뒤 하산중 실종... 생존 불투명

세계 3번째 12좌 등정 성공 철수 미루고 고씨 구조 나서

고미영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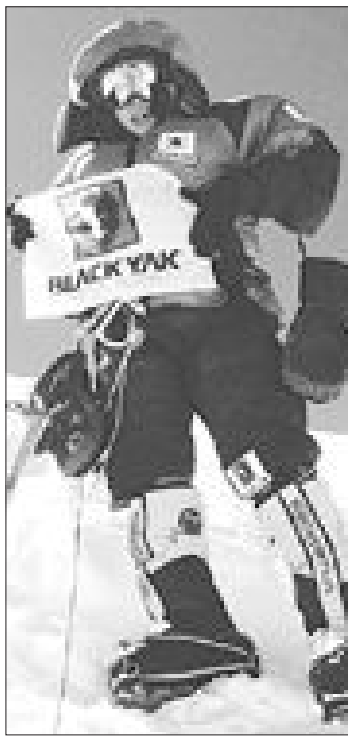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간) 히말라야 낭가파르बाट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던 여성 산악인 고미영(41)씨가 하산 도중에 사고를 당해 구조대가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고씨의 후원사 코오롱스포츠는 12일 "현지에서 수색 작업을 펼치던 헬기가 이날 오후 3시10분 캄프 1이 설치된 히말라야 매스너 루트 100m 위쪽에서 고씨가 정상 쪽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고씨의 생사 여부는 이날 오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고씨는 11일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해발 8천126m의 낭가파르बाट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스포츠는 고씨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1년 코오롱 동산학교로 산악에 입문한 고씨는 2005년 파키스탄 트리파카(6천47m) 등정을 계기로 높은 산에 본격적으로 도전했다. 올해에는 히말라야 마칼루(5월 1일), 칸첸중가(5월 18일), 다울라기리(6월 8일)를 이미 오른 고씨는 이날 낭가파르बाट까지 오르면서 히말라야 8천m 이상 고봉 14개 봉 중 11개 등정에 성공했다.



실종 고미영씨

오은선씨

국내 대표적인 여성 산악인 오은선(43)씨가 히말라야 고봉 14개 중 12개를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오은선씨는 지난 10일(한국시간) 오후 무산으로 해발 8천125m 높이의 히말라야 고봉인 낭가파르बाट 정상에 올랐다. 전날 마지막으로 캄프를 나선 뒤 11시간 동안 눈보라를 이겨내고 이른 쾌거다. 히말라야 12개 봉을 정복한 여성 산악인은 오씨를 포함해 오스트리아 여성 산악인 켈리데 칼텐부너와 스페인의 에드루네 파사반 등 3명에 불과하다.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동에 이어 히말라야 14좌 중 12개봉 등정에 성공한 오씨는 세계 여성 산악인 최초의 히말라야 14좌 완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한국 산악인으로는 2000년 압록길, 2001년 박영석, 2003년 한왕용씨 등 3명이 히말라야 14좌에 모두 올랐다.



오은선씨

한편 오은선씨는 아름다운 등반 경관을 밟이던 고미영씨가 히말라야에서 하산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철수 일정을 미루고 구조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부자감세' 대폭 줄어들듯

여권, 조세특례법 손질... 카드 소득공제도 축소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줄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세특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과 과세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올해 시한이 만료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 비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며,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협회에서 10~50%인 상속·증여세를 6~33%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던 법인세는 이미 인하 계획을 발표했고 기업 활동 여건 개선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북 5년간 남측인사 165만명 정보 해킹"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5년간 인터넷 해킹을 통해 최소 165만명에 달하는 남측 인사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핵심 정보당국자는 이날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한 남측 인사의 수는 확인된 것만 약 165만명에 달하

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추정인원까지 합치면 약 200만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로 군인공제회, 사관학교 동거회, 연구소 등 안보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주요 대학 동창회 사이 등에서 집중 해킹 타겟으로 삼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대 법인 해산편

공익법인 설립 가능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을 뽑기 어려워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이에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이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꺼렸었다. 연합뉴스

국가 인권위장 누가 될까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등 4명 검증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등 4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낙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따르면 청와대 인사 검증이 시작된 4명은 김 고법원장과 조병운 명지대 교수, 권형준 한양대 교수, 정성호 외교교통부 인권대사다. 김 고법원장은 강진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28년간 호남지역에서 판사생활을 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을 목표로, 지역 법률문화 발전을 이끌어왔다. 2005년 법원장이 된 이후로는 재판업무와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으며,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심신미약자, 국

제결혼 이주여성 등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왔다. 끊임없는 연구활동으로 '교수법관'이란 애칭을 얻었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미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노동법 등 6개 그룹의 영미법 스터디 모임을 이끌고 있다. 뉴라이프전국연합 출신의 제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중앙대 교수를 지내면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다. 조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국민의 정부가 된 2001년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 정책자문하는 21세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권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금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이다. /최경호기자 choice@연합뉴스

윤증현 기재부장관 來道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전남도의 사업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13일 전남을 방문한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나주대학교 인근 영산강 살리기 사업장과 나주시 왕곡면 담장정비 회담근로 사업장을 돌아본 뒤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대 국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도내 유기 농산물 수출 활기

전남대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국제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도내 유기 농산물의 유럽·캐나다 수출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대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가 2007년 4월 IFOAM에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고 서류·현장 심사 등을 거친 지 1년 3개월만에 국제 유기농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독일이 본부를 둔 IFOAM은 세계 110여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해 유기농업의 기본 규정과 건강, 생태, 공정성, 배려 등 4원칙을 정해 유기농업

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다. 도내에는 현재 보성 19곳 등 31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별적으로 국제유기농인증을 받아 수출에 나서고 있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인증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기농산물 수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전남대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가 IFOAM의 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이 같은 불만이 해소돼 지역 농업인들의 국제 유기농인증 획득을 위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아주 작은 사과 한마디 없이...

광주일보 光州日報 廣告接수안내 (062) 227-9600 FAX: (062) 227-9500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포츠, 연설, 리더십, 실력향상과정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09. 7.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200,000,000원을 금 57,700,000원으로 감소 할 것을 결의하였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포츠, 연설, 리더십, 실력향상과정

무등빌딩임대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지하철역세권, 신형 주차시설 완비, 중앙공급식 냉·난방,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번영 공인중개사 (062) 531-4665 동림2지구 동림빌딩앞 모텔

경매전문회사 (주)호남 경매 컨설팅 062)228-6600 H.P 010-5616-8988